

# 전춘성 진안군수, 적극 행정 빛났다 “고독사 예방 대책 수립해야”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년 연속 선정

전춘성 진안군수(사진)의 발 빠른 행정이 빛을 발했다. 전춘성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하 농촌새마을사업)에 진안을 일반마을이 선정되며 4년 연속 동 사업에 선정된 것. 새마을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중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일반마을을 김진철 이장과 손흥이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취약한 마을을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주민 의견 수렴 및 회의를 통해 고민하자 군청과 협업해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전춘성 군수가 사업 선정을 위해 중앙부처 관련 부서를 수차례 방문한 결과다. 전 군수는 공모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과 낙후돼가는 마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시급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마을만들기 1번지 진안군의 위치를 위해 끊임 없는 협조와 지원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진안군은 △2019년 마구동지구 △2020년 진안읍 사당지구, 동향면

하노지구, △2021년 백운면 상백지구 △2022년 정천면 무거지구에 이어 연속 4년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2023년 12월 사업비가 확정되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소멸 위기의 마을을 지속 가능한 마을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군이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규사업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선정된 사업들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낙후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주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식

### 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진안군은 지난 9일 주천 행복나눔센터에서 ‘주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주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지역의 중심공간인 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적 기반을 확충하고 배후 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을 활성화해 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3억(국비 38억, 지방비 25억)을 투입해 △기초생활기반확충으로 주천 행복나눔센터, 작은도서관, 교통환경 취약공간 개선 △지역경관개선으로 간판 및 입면정비, 중심지 가로경관 정비, 마을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로 홍보마케팅, 컨설팅, 주민교육 프로



진안군은 주천 행복나눔센터에서 ‘주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그램 운영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시설인 주천 행복나눔센터는 연면적 1,328.87㎡, 지상 2층 규모로 지상 1층에 다목적강당과 공유카페, 2층에는 동아리실과 다목적 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별도의 공간으로 작은

도서관 연면적 199.29㎡, 지상 1층 규모로 공부방과 열람실이 갖춰져 있어 방과후 학생들이 독서와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 시설물이 완공됨에 따라 주천면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정복 의원, 장수군 맨발걷기 활성화·지원 관한 조례안 발의

장정복 의원(사진)이 발의한 장수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장수군의회 제3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맨발걷기는 시간과 장소, 복장과 비



우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지압과 점지효과를 통한 혈행 개선 및 활성산소 체외 배출 등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군에서도 행사를 개최하는 등 맨발걷기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장정복 의원은 군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맨발걷기를 실천할 수 있게 도시공원이나 주거밀집지역 등

에 맨발걸을 조성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맨발걷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맨발걷기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복 의원은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맨발걸을 확충하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맨발걸을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장수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이영희 무주군의회 의원, 사회안전망 대책 촉구 5분 발언

이영희 무주군의회 의원(사진)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무주군이 고독사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대책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실업 문제나 가족·친지관계에서 소외되는 현상 및 이혼 등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정서·육체적 어려움으로 사회와 단절돼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희 의원은 “고독사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보다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무주군의 1인 가구는 2020년 6,263가구, 2022년 6,683가구다. 그리고 고독사 연령대는 50~60대가 절반이 넘어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비극은 아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영희 의원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중·장년층과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심과 고독사 예방사업 적극 추진 △집배원이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우편물 배달시 대상자의 생활환경, 건강상태를 관찰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실시 △1인 가구 및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통화량, 인터넷 사용량, 걸음 수 측정 등으로 위기를 감지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영희 의원은 “행복한 무주, 건강한 무주, 웃음꽃이 피어나는 무주가 되려면 어느 누구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여름철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진안군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12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여름철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이란 식품전문가가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식자재 납품 단계에서부터 조리 전 과정에 걸쳐 식품 위생요소를 진단하고, 오염도 측정을 통한 취약점 분석으로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동탕, 한식 등) 86개소, 휴게음식점 4개소(피자 등) 총 90개소로 평가표에 의해 컨설팅이 진행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보관상태 및 조리장 청결 여부 △식재료 전처리 △중독사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 △조리설비·도구 △방충·방서 시설 △급수시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갈, 도마, 행주 등에 대한 휴대용 세균측정기(ATP) 측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삼채류 대체작목 곤달비 고설재배 시험연구

장수군이 삼채류 대체작목으로 곤달비를 선정해 고설재배 시험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삼채류 고설재배로 기존의 삼채류 재배의 연작 장애 해결 및 노동력 절감, 수확량 증대 효과로 농업인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에 군은 기존 농업인의 삼채류 재배 시 취나물과 겸하는 특성을 활용,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체작목을 발굴하고자 곤달비를 선정해 시험연구에 착수했다. 시험연구는 군농업기술센터 지역적응 실증연구포에서 진행되며, 양액재배, 토양재배로 나눠 결과를 비교분석 할 계획이다. 곤달비 시험연구는 양액재배 시 배지별 생육분석을 통해 곤달비에 맞는 양액 조성 및 환경관리에 대해 정립하고 토양재배와 비교해 생산성, 경영비를 분석하는 것으로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지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철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곤달비가 장수군민의 새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시험연구를 통해 농가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은 지난 9일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 주재로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 주재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

장수군은 지난 9일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 주재로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무원·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이 대상 시설을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관내 안전점검 대상은 5개 분야 시설물 94개소이며, 군은 막바지 점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이종훈 부군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태풍과 집

중후우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급경사지 5개소를 방문해 붕괴, 낙석 등 위험요인 정비 상태, 비탈면 표면 보호 시설 이상 유무, 구조물 균열 및 배수 상태 등 급경사지 안전 관리를 집중 점검했다. 이종훈 부군수는 “여름철은 집중호우 또는 태풍 등으로 급경사지 낙석, 붕괴 등 위험이 높은 만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 발견 시 신속한 조치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